



NO.2167

하늘 마음



알렉산더 이바노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스바 3,14-18ㄴ

화답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이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장기 기증이나 헌혈은 어떤가요? 그리고 견디기 힘든 치료는 거부할 수 있나요?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의학적 딜레마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책임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장기 기증과 헌혈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기를 내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 교적 사랑의 구체적 행위입니다(2008년 11월 7일). 헌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증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됩니다. 인간의 장기와 혈액이 매매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기증으로 누군가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장기들은 기증자가 죽은 다음에 적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로 죽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의대생이나 학자들을 위해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의 조직과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종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돼지의 심장이 사람에게 이식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듯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도 존중해야 합니다.

2 의학적 치료로 생명이 연장되지 않고 오히려 단축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진통제를 투여하여 고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을 줄이는 약물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의 목적이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면, 설령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환자의 생명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은 환자를 위한 사랑에 찬 관심과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비록 모든 고통을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시행하는 안락사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치료를 거부해도 되나요?

때때로 어떤 치료는 큰 아픔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수단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데도 단지 고통을 일으킨다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성장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느님께 이성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경계 안에 있는 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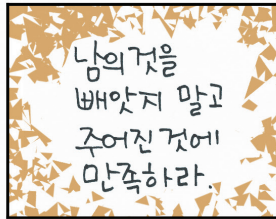
※ 이 글은 《하느님과 트윗을》(2016년,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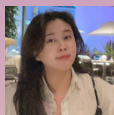
날으는 CYA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구해줘 기도



중고등부 미디어부

김해리 헬레나



오늘의 의뢰

올해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 시기를 기쁘게 보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레오입니다. 얼마 후 정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를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걱정되는 마음이 반반이에요. 그렇게 또 연말이 다가오고, 한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다사다난한 1년이었어요. 힘들고 지치는 일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돌이켜보니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올해는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아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고생한 모두를 위해 특히 저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곧 맞이할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도

올해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되는 연말이에요. 레오 친구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꽁꽁 얼었던 추운 겨울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네요. 전례력으로는 대림 1주일부터 새해가 밝아요. 곧 다가올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행복 가득한 성탄이 되길 선생님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게요.



사진 출처 : Freepik



레오 친구와 올해 고생한 모든 이들을 위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의(가정을 위한) 기도]와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를 추천할게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의(가정을 위한) 기도

보호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의) 가정을
당신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이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일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저희가(그들이) 지금의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당신 안에 머물며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출처 : <가정 기도 길잡이- 가톨릭 출판사>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출처 : <가톨릭 기도서>

이 기도를 바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음자리

2024년 12월 15일 |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루카 3,10-18)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루카 3,10)

새겨보기

오늘은 자선 주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자선'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군중에게 이웃을 돌보고, 정의로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옷을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리와 군사들에게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 것을 권고하며,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며, 더 큰 구원의 길을 예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눔과 자선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단순한 나눔 이상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자선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회개의 실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는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과 마음을
얼마나 나누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